

문 의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	과 장 정성창 사무관 이동훈	042-481-8172 042-481-8241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2018년 12월 10일(월) 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.	

특허청, ‘발명체험교육관’ 1호 설치 지역으로

경상북도 교육청 선정

- 경주 황남초를 재단장하여 첨단기술과 전통문화유산이 융합된
체험·심화형 발명교육을 제공 -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‘발명체험교육관’ 설치·운영할 교육청을 공모한 결과 “경상북도 교육청(교육감 임종식)을 우선협상 교육청으로 최종 선정했다.”고 발표했다.
- 이번 공모에는 총 2개의 시·도 교육청에서 신청하였으며 현장 실사(‘18.10.25~10.26)와 종합심사(‘18.10.30)의 과정을 거쳐 경상북도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.
- ‘발명체험교육관’은 ▲청소년들에게는 체험·심화형 발명교육, ▲초·중·고 교원에게는 체험위주의 연수 제공, ▲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▲체험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·육성하여 차세대 혁신가로 육성할 계획이다.
- 그간, 초·중고 정규교과의 발명관련 단원은 이론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체험형 교육시설인 발명교육센터는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어 실습·체험 교육에 한계가 있어왔다. 동 교육관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.

- 경상북도 교육청은 경주시에 소재한 황남초등학교 건물을 재단장(리모델링)해 '발명체험교육관'으로 조성할 계획이다.
- 그간, 황남초등학교는 침성대, 설굴암, 포석정 등 발명유산을 탐구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발명교육을 해왔다. 발명체험교육관으로 재단장한 후에는 이러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에게 최신기술과 전통문화유산이 결합된 발명교육을 제공하게 된다.
- 특허청은 시설 재단장(리모델링), 교육 기자재 구입, 교육운영 등을 위해 '19년도 사업비 총 47.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
- 경상북도 교육청은 부지·건물을 제공하고 시설 재단장(리모델링), 교육 기자재 구입비용 등 약 90억원을 대응 투자할 계획이다.
- 특허청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선정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하고 경상북도 교육청과 '발명체험교육관 사업 추진 업무 협약'을 체결할 예정이다.
- 박원주 특허청장은 “이번 1호 발명체험교육관을 통해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지원하여 지역의 혁신인재를 발굴할 계획이다.”라고 하면서 “경주의 찬란한 전통문화유산과 발명교육을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의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을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【붙임】 1. '발명체험교육관 설치 계획(안)'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사무관 이동훈(☎ 042-481-82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발명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·융합형 인재 육성의 핵심적 교육 수단이며,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발명교육을 강화 추세
- 교육 현장의 체험형 발명교육 확대 요구, 검증된 체험·심화 교육의 체계적 확산 등 「발명교육법」 제정(17)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

□ 기본 운영 방향

- 체험·심화형 발명교육을 통해 지역의 혁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·육성하여 차세대 혁신가로 육성

- (학생) 로봇, 코딩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만들어보고, 원리를 체득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·제작 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- * 심화 발명 체험 교육, 발명 원리 탐구, 발명 전시관 운영 등
- (교원) 초등·중등 교원대상으로 신규·심화 발명교육 교수법, 지도 사례 연구, 최신 기자재, 교구재 활용기법 등의 연수로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신장

□ 운영 체계

- 교육청 직속 기관으로 설치·운영하고, 특허청은 축적한 발명교육 경험을 전수하여 전국 단위로 확산 추진(한국발명진흥회 전문인력 활용)
 - * (특허청) 정책 총괄, (교육청) 관내 발명교육 운영, (발명진흥회) 콘텐츠 개발·적용
- (조직) 관장, 3개 팀(교육총괄, 전시운영, 운영지원) 총 15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발명교육 운영 지원
 - * 발명진흥회(4명), 교육관 자체 채용(4명), 발명교육 담당 교원 파견(7명) 등

□ 시설 및 예산

- (시설) 체험·심화형 교육을 위해 시·도 교육청 소유의 부지를 활용하고, 신축 또는 폐교 리모델링 등 추진
 - (구성) 체험전시관(1층), 발명상상실 및 발명창작실(2층), 다목적 강당, 행정실(3층) 등 3층 규모의 시설 구축(연건평/총대지 : 4,500㎡/6,600㎡)
 - (기자재 등) 최신 기자재(3D 프린터, 레이저커터 등), 교구재(드론, VR, 아두이노 등)를 구비하여 체험·심화 발명교육 환경을 조성
- (예산) 특허청은 '19년에 총 47.6억원 지원(시설구축비·기자재구입비 42.9억원, 운영비 4.7억원), 교육청은 최소 국비지원 이상의 예산을 매칭 부담
 - '20년부터는 발명체험교육관의 지속적·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간 운영비 확보 추진(국비·지방비 최소 16.8억원 이상)

□ 선정 방안

- 시·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개 교육청을 선정(11월 초)
 - (기준) 정량평가(60점, 교육관 설립지원 적절성)와 정성평가(40점, 교육관 설립의 추진역량)를 합산한 점수로 선정
 - (절차) 외부전문가를 과반 이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*를 구성(7명), 현장실사 결과 및 선정기준에 의해 평가 실시

※ 발명교육, 지식재산 정책, 체험·전시, 관리·운영 분야 등 전문가

□ 추진 일정

- 경상북도 교육청에 결과통보 후 특허청-시·도 교육청간 협약 체결 추진